

[보도자료] 김규원, ‘아파트’로 첫 정극 신고식 성공! 우직한 의리·반전 순수미 ‘큰둥이’로 ‘차세대 신스틸러’ 등극

2026. 8. 11.



김규원이 드라마 <아파트>를 통해 첫 정극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차세대 신스틸러’로 주목받고 있다.

김규원은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극본 김윤영/ 연출 조용원/ 제작 SLL, 레드나인픽처스)에서 오아시스파 전직 보스 ‘박해강’(지성)을 보필하는 가짜 가족의 막내 ‘큰둥이’ 역을 맡아 작품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거대한 피지컬과 대비되는 무해한 순수함, 우직한 충심, 남다른 식탐까지 지닌 ‘큰둥이’의 반전 매력을 위트 있게 입혀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캐릭터의 순박한 면모를 과함 없이 조율해 내는 세밀한 연기 디테일이 돋보인다. 특유의 다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짜 가족이 진짜 결속력으로 뭉쳐가는 서사에 설득력을 더한다는 평이다. 유연한 연기 호흡 속에 본인만의 개성을 녹여내며 첫 정극 도전임에도 밀도 높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호평의 바탕에는 코미디 무대에서 다져온 탄탄한 내공이 자리하고 있다. 김규원은 희극의 강점을 정극에 맞게 변주하며 ‘큰둥이’만의 색깔을 구축했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에서 보여준 빠른 호흡과 캐릭터 소화력에 안정적인 감정선을 더하며, 유쾌함과 진중함을 오가는 인물의 매력을 한층 풍성하게 살려냈다.

나아가 ‘큰둥이’의 우직한 의리와 순수한 면모를 중심에 두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쾌한 표정과 몸짓을 엮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완성했다. 이처럼 김규원은 희극과 정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장르에 따라 연기의 온도와 결을 달리하는 기량을 보여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한편 김규원은 최근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신인남자에능인상을 수상하며 대세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와 함께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 프리뷰쇼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첫 정극 도전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큰둥이'를 완성하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끌어올린 김규원. 희극과 정극을 오가며 깊어진 연기 내공을 증명한 그가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둔 <아파트>에서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기대가 모인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